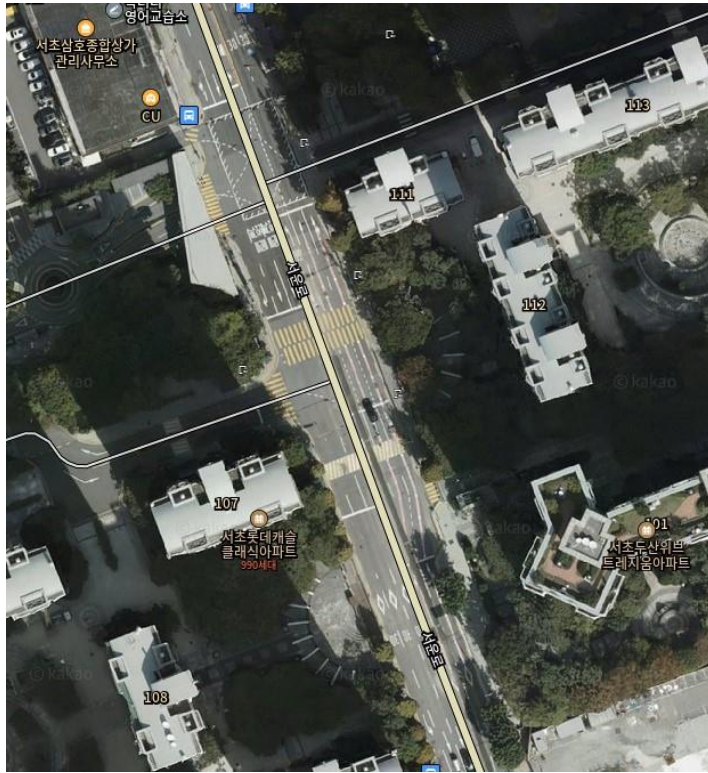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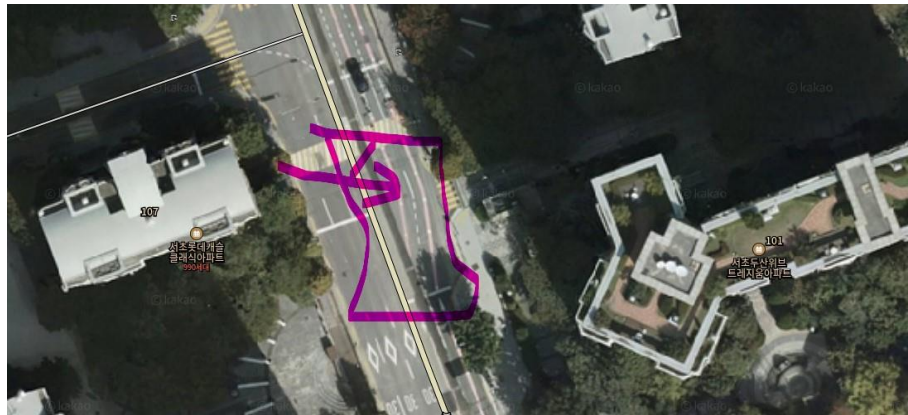
올림픽대로 양화대교와 당산철교 사이 동쪽 방향 도로



오전 9시에서 9시30분 사이에 그 길을 운전하며 동쪽으로 이동하는 시민임.
 앞에서 햇빛이 비춰 이에 반사되어 바닥에 다시 그어 놓은 차선이 겹쳐서 보임.
 아마 지운 차선이 햇빛의 영향으로 보이는 것 같음.
 이에 차선을 구분할 수가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.
 매일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가면 늘 차선 때문에 혼돈이 생김.



서초동 서운로
서초롯데캐슬클래식 아파트 옆길
임.



서초롯데캐슬클래식 아파트 107동 옆길 그림처럼 차선이 굽어지는 곳임.
밤에 주로 그 길을 따라 북쪽으로 운전하는 시민임.

차선이 가다가 우로 굽은 길이 나오는데
이때 2차선 운전자가 굽은 길을 인지하여 그 장소에서 우로 꺾어 주면 되는데
경험상 가끔 2차선의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직진을 하는 바람에
1차선 운전자가 혼란을 겪은 적이 수 차례임.

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2차선 차량을 인지하고
빨리 가든지 뒤로 빠지는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임.

어젯 밤에도 1차선을 가는데 2차선의 영업용 택시가 그냥 직진을 하는 바람에
1차선을 달리던 본인이 급 브레이크를 밟아 멈춘 사고성이 있었음.